



GILLETTE의 MALANDRINO 교수

다음 날, 나는 아파트를 빌리기 위한 약속이 있었다.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환상적이었지만 집세를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웠고, 나는 결국 수도의 마지막 변경, 역사적인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: AMADORA BORDEA.

그 동네는 독특했다. 포르투갈에 사는 외국인 공동체의 고향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포르투갈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— 나 같은 침입자도 몇 명 있었다.

아버지와 아들이 나를 맞으러 왔다. 그런데 집 안에 발을 들이자, 그들은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쓰는 이층 침대를 보여 주었다. 9제곱미터짜리 방 안, 방 셋에 아홉 사람, 욕실 하나, 작은 부엌 하나, 냉장고 세 대, 그리고 상주 손님인 바퀴벌레들이 있는 아파트 — 이 모든 것이 약 60제곱미터 안에, 한 달 230유로였다.

그러고 나니 먹고 사는 데 쓸 돈이 한 달에 정확히 70유로 남았다.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을 깨달았다: 나는 가난한 사람이 부를 관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강좌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—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.

한 사람씩, 청년들이 다가와 이름과 출신 나라를 말하며 자기소개를 했다.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,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인지 알아내려고 나를 지켜보았다.

나는 모두에게 미소를 짓고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건넸다: 앙골라, 모가디슈, 상투메, 브라질, 포르투갈, 중국, 러시아,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.

그날 저녁 그들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— 나를 환영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. 나는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, 20분 동안 모두와 수줍게 이야기를 나눈 뒤,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순간 나의 새로운 포르투갈 정체성이 태어났다:

Malandrino 교수

그들은 모두 어머니, 아내, 혹은 여자 친구를 두고 떠난 젊은이들이었다. 집에서도,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. 나는 그들에게 경험에서 나온 실화 하나를 들려주기로 했다 — 그 대가로 각자에게서 반응을 얻을 것이고, 그것이 그

들의 성격과 인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터였다. 그들 중 누구도 나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.

나는 그들에게 2021년에 브라질의 나탈이라는 도시에서 휴가를 즐긴 이야기를 했다. 모래언덕과 그 지역의 의식으로 알려진 곳인데, 낮이 밤으로 바뀔 무렵이면 모래언덕 꼭대기의 아가씨들이 뒷걸음질로 내려와, 아래에서 곳곳하게 기다리는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,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까지 쌓아 가는 것이었다.

나는 그 도시에 40일 동안 머물렀다 — 정말로 나의 브라질 격리 기간이었다 — 그러나 그 놀이에는 한 번도 끼지 않았다. 나는 구경꾼으로 남았고, 지켜보았다.

오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한다. 브라질을 안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— Gillette의 여성 CEO가 뜻밖에 등장했을 때조차 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언젠가 자기 고향에 대해 묻는다면,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:

모래언덕의 의식,

나는 그것을 안다,

하지만 한 번도 끼지 않았다,

나는 누구에게도 미래를 주지 않으니까,

오직 현재만을.

그 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총장의 딸과의 이야기였다. 어느 월요일 저녁 싱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였다.

나는 이름과 브라질 전화번호를 적어 미리 준비한 종이 카드 100장을 들고 가서,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과 주고받았다 — 내 마음에 들었고, 자신이 싱글이거나 이혼했거나 과부라고 말한 여자들과. 다음 날 슈퍼마켓에서 그중 네 명을 보았는데,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. 오간 말은 없었다. 오직 말 없는 눈길뿐.

총장의 딸 Camilla는 아름답고 압도적인 여자였다. 오후 2시에 나를 집으로 데려가 밤 10시에야 내보낸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.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나는 깨달았다. 위층의 내 동료가 나를 벌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— 한 여자는 천 명의 남자를 이길 수 있지만, 천 명의 남자는 한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.

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, 나는 곧바로 그녀를 이탈리아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으며 화이트 와인 두 병과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한 랍스터 14마리를 주문했다. 브라질 웨이터가 브루스케타를 원하느냐고 물었지만, 피로 때문인지 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내 귀 때문인지 — 나는 그 말을 “bussetta”로 알아들었고, 이미 기진맥진해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.

방 안의 청년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. 최면에 걸린 듯한 얼굴로 — 그들은 아직도 사랑이 어떻게 팔리는지를 다룬 열두 쪽짜리 Amazon판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다. 그들이 폭발할 위험 없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겠는가?

나는 대화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.

다음 날 아침, 집 안 여기저기서 모두가 “브라질 bussetta”와 “bussettero”라고 말하고 있었다. 콜롬비아 스페인어로 버스 운전사라는 뜻이다 — 하지만 그 말장난은 어쨌든 모두를 웃게 했다.

나는 2025년 11월 22일에 떠났고, 모두가 내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— 내 침대에서 나와 함께 자던 바퀴벌레들조차 잠시 슬퍼했다. 누군가와 함께 행복했는데 그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야, 다시는 갖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.

Ferdinando